

#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백제의 지배구조와 왕위계승 갈등의 반복 배경\*

백길남\*\*

- 
- I. 머리말
  - II. 王弟의 왕위계승 자격과 왕위 도전
  - III. 外戚勢力의 주요 직임 독점
  - IV. 유력 성씨 집단의 竝存
  - V. 맺음말
- 

## 【국문초록】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백제 국왕은 扶餘氏 肖古系가 왕위를 잇는다는 점은 확고해졌으나 扶餘氏 肖古系 중 특정 가계가 왕위를 독점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적장자’ 계승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력한 왕제인 ‘적임자’가 왕위를 잇는 변칙이 허용되었다. 왕제 등 근친 왕족이 가진 정치적 위상, 경제적 특권, 私的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眞氏와 解氏는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여씨 왕실과 꾸준히 통혼하며 주요 직임을 맡았고, 특히 兵官佐平으로 상징되는 군사권을 독점했다. 이들은 차기 왕위계승자를 지지하며 왕실과의 인척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했으며, 왕실과 통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주요 직임에서 배제되는 정치적 한계가 있었다.

上佐平, 內臣佐平, 병관좌평과 같은 핵심 직임은 왕족과 외척 세력이 관례적으로 ‘분담’하였다. 이는 곧 국왕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군사권 행사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왕권이 친족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초월’할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배구조가 고수된 것은 방계 왕족의 왕위 도전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가까운 친족집단을 왕실의 울타리로 삼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여씨, 진씨, 해씨의 공

---

\* 이 논문은 백길남, 2024, 『5세기 百濟의 지배체제 정비와 中國 官爵 활용』,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동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沙氏, 木氏 등 새로운 유력 성씨 집단과 中國系 유력 인사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백제 최대 귀족 세력’인 부여씨는 왕위계승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진씨, 해씨와 선택적으로 연합하며 통혼했으며 진씨, 해씨 또한 왕실과 인척 관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친족집단마다 가진 이해관계와 핵심 권력을 ‘분담’하는 관례에 따라 부여씨 특정 가계가 왕위를 ‘독점’할 수 없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왕위계승 갈등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부여씨, 진씨, 해씨 세력은 주요 직임과 핵심 권한을 독점하는 지배구조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왕족, 외척, 부여씨, 진씨, 해씨, 왕위계승 갈등

## I. 머리말

4세기 초엽 낙랑군과 대방군의 소멸을 계기로 완충지대가 사라진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전이 본격화되었다. 近肖古王과 近仇首王代 백제 우위의 공방전을 거쳐 辰斯王代부터는 고구려 거센 침공에 직면하였다. 고구려의 남진 속에서 백제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였고 왕권의 위상은 추락하였다. 약해진 왕권 아래 왕족과 귀족 세력이 발호하여 왕위에 도전하는 갈등이 빈번히 벌어진 것으로 설명된다.<sup>1)</sup>

왕권은 지배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정치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주제이다. 한국 고대 정치사 연구는 ‘왕권의 強弱 추이’ 분석에 집중되었고 각 지배세력의 국왕에 대한 ‘지지와 반대’ 양상을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 그리하여 왕권 강화는 사회적 안정을, 왕권 약화는 사회적 혼란으로써 평가하려는 경향도 확인된다.<sup>2)</sup> 백제 정치사 연구 역시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4~5세기 백제 왕권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으로는 扶餘氏 왕족과 부여씨 왕실과 연속적으로 통혼한 眞氏, 解氏 세력이 있었다. 각 지배세력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왕권 강화의 기여’ 여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상반되게 평가된다. 먼저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을 노려 국왕의 王弟가 왕위를 차지하거나 도전하는 등 왕족의 내분이 왕권 약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면서도,<sup>3)</sup> 진씨, 해씨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왕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지향할 때 왕권이

1) 진사왕부터 蓋鹵王代까지의 정치사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盧重國, 1988, 123~149쪽 ; 강중원, 2002, 136~143쪽 ; 문안식, 2006, 167~258쪽 ; 문동석, 2007, 81~130쪽 ; 이도학, 2010, 115~187쪽 ; 강중원, 2012, 103~183쪽 ; 양기석, 2013, 34~117쪽 ; 노중국, 2018, 232~289쪽.

2) 왕권 강화를 기준으로 고대 정치의 발전을 이해하려는 연구 경향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하일식, 2005).

강화될 수 있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4)</sup> 이처럼 왕권 강화의 기여를 기준으로 왕족의 정치적 존재 가치가 평가된다.

한편, 근초고왕대부터 阿莘王代까지 진씨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독점하였다가 腆支王代를 기점으로 해서 집단이 왕실과 통혼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씨, 해씨 세력은 왕권 강화에 ‘기여’ 하였지만,<sup>5)</sup> 왕족 간의 반목 속에 兵權을 장악하는 등 왕권을 ‘제약’ 하는 존재로서 평가된다.<sup>6)</sup> 진씨, 해씨 세력 역시 왕권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라 그 정치적 평가가 달라진다.

왕실을 둘러싼 부여씨 왕족과 진씨, 해씨 세력의 정치 활동을 ‘왕권 강화의 기여’ 여부로만 평가하는 것이 백제 정치사를 복원하는 연구방법은 아닐 것이다. 왕권을 중심으로 정치사를 이해할 경우 부여씨 왕족과 진씨, 해씨의 각 지배세력이 가진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왕제 같은 근친 왕족이 왕위에 계승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허용’ 되고, 왕실과 통혼한 세력이 이런 왕위계승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이 ‘반복’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여씨, 진씨, 해씨의 국왕 親族集團은 본래 백제의 건국과 성장을 함께 이끈 ‘創業勢力’으로서<sup>7)</sup>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부여씨, 진씨, 해씨의 국왕 친족집단이 주요 직임을 ‘분담’ 하는 것이 오랜 기간 고수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 신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백제 고유의 지배구조 특성이다. 이들 창업세력이 누대로 통혼을 하면서 주요 직임을 분담한 것은 상호 합의된 하나의 ‘원칙이자 관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과 관례가 고수되는데 이들 친족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유력 성씨 집단이 백제 정치사회에 ‘竝存’하고 있었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초고왕대 이래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빈출하고 있는 부여씨 왕족과 진씨, 해씨 세력의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통의 유력 성씨 집단이 병존하였던 역학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5세기 백제의 지배구조에서 왕위계승 갈등이 ‘반복’되었던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침류왕 사후 진사왕의 즉위와 아신왕 사후 磔禮의 난이 왕제가 왕위를 차지하거나 도전한 대표적 사례이다. 진사왕 즉위와 설례의 난에 대한 연구성과는 본문에서 제시한다.

4) 전지왕대 王弟의 ‘上佐平’ 임명, 개로왕대 왕족 중심으로 ‘左·右賢王’과 ‘王·侯號’ 수여하는 양상이 왕족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그러하다(이도학, 2010, 146쪽과 180쪽 ; 양기석, 2013, 58쪽과 76쪽 ; 문동석, 2007, 앞의 책, 101~130쪽).

5) 근초고왕대 진씨 세력을 왕비족으로 맞이함으로써 부여씨 왕실은 왕권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이해한다(盧重國, 1988, 131쪽 ; 이도학, 2010, 127쪽).

6) 진사왕과 아신왕대에는 진씨, 비유왕대 해씨가 ‘兵權’을 장악함으로써 왕권행사를 제약하였다고 이해한다(盧重國, 1988, 134쪽과 137쪽 ; 양기석, 2013, 47쪽과 66쪽).

7) 진씨, 해씨는 건국 초기부터 右輔와 左將 등의 주요 직임을 맡아 백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부여씨와 더불어 ‘창업세력’으로 파악한다.

8) 한성도읍기의 지배세력 연구에 부여씨 왕족과 진씨, 해씨 이른바 ‘王妃族’에만 한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지배세력의 진출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참고된다(문동석, 2007, 18~19쪽).

## II. 王弟의 왕위계승 자격과 왕위 도진

백제 王姓은 扶餘氏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여씨가 王統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백제 왕계를 단일 계통으로 이해하면서 형제상속과 부자상속이 교차하는 과도기가 있었다고 파악하기도 하지만,<sup>9)</sup> 건국 초기에는 복수의 王系가 서로 왕위를 경쟁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제의 왕계를 沸流系와 溫祚系로 구별하고 ‘優氏’인 沸流-古爾系와 ‘扶餘氏’인 溫祚-肖古系의 경쟁 속에서 왕위가 이어졌고 近肖古王의 즉위로 초고계가 왕위를 독점하였다고 본다.<sup>10)</sup> 한편, 백제의 王姓을 ‘解氏’와 ‘扶餘氏’로 보는 입장에서는 多婁王에서 蓋婁王까지는 해씨이고, 초고왕부터는 부여씨로 파악하면서 직계인 초고계와 방계인 고이계 사이의 왕위 갈등이 있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11)</sup> 혹은 고이계와 초고계는 동시기 지역적으로 기반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하면서 초고계가 고이계를 흡수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up>12)</sup> 이처럼 부여씨 이외에도 해씨, 우씨 등의 異姓의 왕성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고이왕계와 초고왕계’ 같은 이원적 왕계가 있었음이 일찍이 지적되었다.

- ① 3월에 왕의 아우인 優壽를 內臣佐平으로 삼았다.<sup>13)</sup>
- ② 2월에 眞可를 內頭佐平으로 삼고, 優豆를 內法佐平으로 삼고, 高壽를 衛士佐平으로 삼고, 昆奴를 朝廷佐平으로 삼고, 惟已를 兵官佐平으로 삼았다.<sup>14)</sup>
- ③ 봄 정월에 왕 庶弟인 優福을 內臣佐平으로 삼았다.<sup>15)</sup>
- ④ 9월에 內臣佐平 優福이 北漢城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다.<sup>16)</sup>

3세기 이후 고이왕계와 초고왕계의 유력한 왕계가 번갈아 왕위를 경쟁하는 가운데, 나타난 주목되는 현상 중 하나가 현 국왕의 王弟 또는 王庶弟의 정치적 위상과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고이왕 집권 초기만 해도 叔父 質이 右輔를 맡은 사례가 있었고<sup>17)</sup> 온조왕대 族父 乙音이 우보를 맡았던 전례가 있었다.<sup>18)</sup> 즉, 고이왕 집권 초기까지는 국왕보다 ‘윗세대’의 왕족이 국왕의 지지 세력을 대표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9) 李基白, 1959 ; 1996, 127~146쪽.  
 10) 千寬宇, 1989, 322~330쪽.  
 11) 盧重國, 1988, 65~78쪽.  
 12) 김기섭, 2000, 57~73쪽.  
 13)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2 古爾王 27년 3월, “三月 以王弟優壽爲內臣佐平”  
 14)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爾王 28년 2월,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優豆爲內法佐平 高壽爲衛士佐平 昆奴爲朝廷佐平 惟已爲兵官佐平”  
 15)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比流王 18년 1월, “十八年 春正月 以王庶弟優福爲內臣佐平”  
 16)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比流王 24년 9월, “九月 內臣佐平優福 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  
 17)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爾王 9년 4월,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質性思毅 謀事無失”  
 18)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년 3월, “三月 王以族父乙音 有智識膽力 拜爲右輔 委以兵馬之事”

고이왕대 佐平이 설치됨에 따라 왕제 優壽가 內臣佐平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內法佐平 優豆가 임명되었다. 우수의 사례를 볼 때, 우두 역시 왕제로 추정된다. 비류왕대에는 왕서제 優福 역시 내신좌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우복은 比流王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국왕과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19)</sup>

고이왕대 6좌평이 모두 설치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sup>20)</sup> 내신좌평처럼 왕명을 수행하는 직무는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특히 고이왕대부터 왕제가 내신좌평과 같은 왕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관례’가 정착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이왕계와 초고왕계로 상징되는 유력 왕계 간의 왕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왕위계승을 위해서는 왕제와 같은 동세대의 근친 왕족의 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이왕대를 기점으로 왕제의 국정 참여는 활성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부여씨 왕족의 정치적 위상(은조왕~문주왕)

왕대(연도)	국왕과의 관계	이름	직임
은조왕 2년(17BCE)	族父	乙音	右輔
고이왕 9년(242)	叔父	質	右輔
고이왕 27년(260)	王弟	優壽	內臣佐平
고이왕 28년(261)	(王弟?)	優豆	內法佐平
비류왕 18년(321)	王庶弟	優福	內臣佐平
아신왕 3년(394)	王庶弟	洪	內臣佐平
아신왕 14년(405)	仲弟	訓解	攝政
아신왕 14년(405)	季弟	磔禮	-
전지왕 3년(407)	王庶弟	餘信	內臣佐平
전지왕 4년(408)	王庶弟	餘信	上佐平
개로왕 21년(475)	王子(王弟)	文周	上佐平
문주왕 3년(477)	王弟	昆支	內臣佐平

고이왕계와 초고왕계의 왕위계승 각축은 근초고왕의 등극으로 초고계의 왕위 독점으로 귀결된다. 근초고왕, 근구수왕, 침류왕 3대까지는 ‘嫡長子’가 차례로 왕위를 이었다. 근초고왕부터 침류왕대까지는 왕제의 특별한 정치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지만, 고이왕대부터 시작된 왕제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된 것 같다. 특히 왕제는 국왕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19) ‘庶弟’, 즉 異母弟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견해(李基白, 1959 ; 1996, 132쪽), 尙古系에게 통합된 뒤의 古爾系에 대한 처우의 불만으로 優福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견해(김기섭, 2000, 70~71쪽) 등이 있다.

20) 고이왕대, 4~6세기, 무왕대로 6佐平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이해의 차이가 있다(김영심, 2015, 46~55쪽). 고이왕대부터 6좌평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6좌평이 맡았다는 직무 자체는 고이왕대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21)</sup> 관련하여 枕流王에서 辰斯王으로, 阿莘王에서 腆支王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시기가 주목된다.

- ① 辰斯王은 近仇首王之 둘째 아들이며 枕流王之 아우이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지략이 많았다. 침류왕이 돌아가셨을 때 太子가 어렸으므로 숙부인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sup>22)</sup>
- ② 王이 狗原에서 사냥하였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11월에 왕이 狗原의 行宮에서 서거했다.<sup>23)</sup>
- ③ 阿莘王 [혹은 阿芳이라고도 한다.]은 枕流王之 맏아들이다. 처음에 漢城의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광채가 밤을 밝혔으며, 장성하여서는 뜻과 기개가 무척 호방하였고, 매 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 침류왕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숙부인 진사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재위]8년(392)에 돌아가시자 왕위에 올랐다.<sup>24)</sup>
- ④ 65년 백제 枕流王이 죽었다. 왕자 阿花가 어렸으므로 숙부 辰斯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였다.<sup>25)</sup>
- ⑤ 이해 百濟의 辰斯王이 왕위에 있으면서 貴國[日本]의 天皇에게 예의를 잃었으므로, 紀角宿禰·羽田矢代宿禰·石川宿禰·菟木宿禰를 파견하여 그 무례함을 책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百濟國에서는 辰斯王을 죽여 사죄하였다. 紀角宿禰 등은 阿花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sup>26)</sup>

침류왕이 죽자 아들 阿莘이 어려 침류왕의 왕제 辰斯가 왕위를 이었다. 당시 아신의 나이가 어떠하였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단지 왕위계승자가 어리다고 하여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久爾辛王之 경우에 나이가 어렸으나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참고된다.<sup>27)</sup> 그래서 진사왕의 즉위가 아신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라는 『일본서기』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진사왕의 즉위가 원만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진사왕 사후, 『일본서기』에서는 진사왕을 제거하고 아신왕이 즉위하였다고 한다.<sup>29)</sup> 아신왕의 즉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삼국사기』에는 아신왕의

21) 李基白, 1959 ; 1996, 149~150쪽.

2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원년 11월,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枕流之弟 爲人強勇聰惠 多智略 枕流之薨也 太子少 故叔父辰斯即位”

2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十一月 薨於狗原行宮”

2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원년 11월, “阿莘王 或云阿芳 枕流王之元子 初生於漢城別宮 神光炤夜 及壯 志氣豪邁 好鷹馬 王薨時年少 故叔父辰斯繼位 八年薨 即位”

25)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65년, “六十五年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26) 『일본서기』 권10, 應神天皇 3년, “是歲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噴讓其無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而歸”

27) 『일본서기』 권10, 應神天皇 25년.

28) 침류왕의 불교공인에 따른 지배세력의 갈등에 빚어진 결과로 태자 아신 대신하여 진사왕이 즉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盧重國, 1988, 132쪽 ; 趙景徹, 2002, 250쪽 ; 길기태, 2012, 82쪽). 반면 태자 아신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고, 진씨 세력과 공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등에서 진사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용호, 2016, 145~152쪽).

29) 『일본서기』의 기록은 후대 찬자에 의한 蕃國사관에 의해 윤색되었기 때문에 왜국이 진사왕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木氏를 비롯한 백제인들의 관여에 의한 정변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양기석, 2013, 45쪽 ; 홍성화, 2024, 89~93쪽).

30) 진사왕의 실정(강종원, 2002, 앞의 책, 140~141쪽)과 고구려와 전투에서 패전 책임과 사후 수습을 명분

즉위에 대한 갈등을 확인할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진사왕이 열흘이 지나도록 사냥을 떠났다가 구원 행궁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왕궁을 떠나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번고가 생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후대의 사실이지만, 文周王과 東城王의 경우도 사냥을 떠나 죽었던 사례가 참고된다.<sup>32)</sup>

아신왕 치세 동안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으로 백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393년 關彌城 전투를 시작으로,<sup>33)</sup> 394년 水谷城 전투,<sup>34)</sup> 395년 浪水 전투까지<sup>35)</sup> 고구려에게 패배하거나 별다른 성과없이 回軍하였다. 그러다 396년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漢城을 포위하자 아신왕은 ‘奴客’을 맹세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sup>36)</sup> 이때 “아신왕의 왕제와 大臣 10인을 거느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sup>37)</sup> 「광개토왕비」의 기록을 통해 아신왕대 권력의 핵심에 ‘왕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腆支王(혹은 直支라고 한다.)은 『梁書』에서 이름을映이라고 하였다. 阿莘王의 맏아들로서 아신왕 재위 3년(394)에 태자가 되었고, 6년(397)에 왜국에 볼모로 갔다. 14년(405)에 왕이 돌아가시자 왕의 둘째 동생 訓解가 대신 다스리면서 태자가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왕의 막내 동생 磔禮가 혼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전지가 倭에서 부고를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돌아가기를 청하니 왜왕이 군사 100명으로 호위하며 보냈다. 이윽고 국경에 이르자 漢城 사람 解惠이 와서 알리기를,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왕의 동생 설례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태자께서는 경솔히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전지가 왜인을 머물게 하여 스스로 지키면서 바다의 섬에 의지하여 기다렸더니 나라 사람들이 설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비는 八須夫 이니 아들 久余후을 낳았다.<sup>38)</sup>

으로 진사왕을 제거하고 아신왕이 즉위하였다는 견해(梁起錫, 1982, 15쪽 ; 이도학, 2010, 139~140쪽) 등이 있다.

- 31) 전렵지는 왕위계승문제가 논의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전렵지에서 열린 귀족회의에 의해 폐위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盧重國, 1988, 133쪽).
- 32)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문주왕 3년 9월, “九月 王出獵 宿於外 解仇使盜害之 遂薨” ;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동성왕 23년 11월, “十一月 獵於熊川北原 又田於泗泚西原 阻大雪 宿於馬浦村 初王以苜加鎮加林城 加不欲往 辭 以疾 王不許 是以怨王 至是 使人刺王 至十二月乃薨 諡曰東城王”
- 3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 8월,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 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岬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 3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3년 7월,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 3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 8월, “秋八月 王命左將真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浪水之上拒戰 我軍大敗死者八千人” ;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 11월, “冬十一月 王欲報浪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次於青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迴軍至漢山城 勞軍士”
- 36) 「광개토왕비」, “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중략)…其國城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侵穴便圍城而殘主困逼獻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
- 37) 「광개토왕비」, “太王恩赦先迷之愆錄 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旋師還都”
- 3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원년 9월, “腆支王 或士直支 梁書名映 阿莘之元子 阿莘在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四年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磔禮殺訓

아신왕은 397년 太子 腆支를 倭로 倂國하여<sup>39)</sup> 왜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398년과 399년에도 아신왕은 고구려를 공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sup>40)</sup> 405년 아신왕이 죽자 전지가 왜국에서 귀국하게 된다. 태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동안 아신왕의 왕제인 訓解가 잠시 섭정을 맡았지만, 이때 막내 磔禮가 왕위를 찬탈하였다.

일단 태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원칙’ 이었고, 이런 원칙을 지지하는 왕제가 임시 ‘攝政’ 을 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왕이 죽고 태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왕제가 국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특히 연령 서열에 따라 국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되었음을 아신왕 사후의 양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태자 계승 원칙은 확고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설례가 섭정을 맡은 혼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이다.<sup>41)</sup> 설례의 난을 통해 왕제가 가진 정치적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태자 전지는 한성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섬에서 머물다가 설례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漢城人 解忠이 전지를 도왔다는 기록을 보면, 解氏 세력을 중심으로 태자 전지의 즉위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① 25년 百濟의 直支왕이 죽었다. 곧 아들 久爾辛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木滿致가 國政을 잡았는데, 왕의 어머니와 서로 정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天皇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 『百濟記』에는, “木滿致는 木羅斤資가 新羅를 칠 때에 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낳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功으로 任那에서 專橫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貴國(日本)에 갔다가 돌아와 天朝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의 국정을 잡았는데, 권세의 높기가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그러나 天朝에서는 그의 횡포함을 듣고 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다.<sup>43)</sup>

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弃世 王弟磔禮 殺兄自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妃八須夫人 生子久尔辛”

39)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6년 5월,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광개토태왕비」,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 와 『日本書紀』 권10, 應神天皇 8년 3월, “八年春三月 百濟人來朝百濟記云 阿花王立無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40)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7년 8월,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帥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8년 8월, “八年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滅”

41) 고구려와의 대치정국에 따른 백제 내부의 위기감을 이용하여 왕위를 비워둘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설례가 왕위를 차지한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李龍虎, 2009, 53~54쪽).

42) 대고구려전에 패배한 진무를 대신하여 사두를 좌장으로 임명하면서 진씨 세력이 아신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설례에게 접근했다는 견해(盧重國, 1978, 61~62쪽; 양기석, 2013, 56쪽)와 아신왕대 말년에 대고구려전에 실패한 진씨 대신 해씨 세력과 태자 전지를 결혼시키면서 유착하였고 이로 인해 진씨 세력이 설례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도학, 2010, 141쪽) 등이 있다.

43) 『일본서기』 권10, 應神天皇 25년, “廿五年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姪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 討新羅時 娶其國婦 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朝聞其暴召之”

② 毗有王은 久爾辛王之 子아들로 혹은 腆支王之 庶子라고도 하나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하여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중하였다. 구이신왕이 돌아가시자 왕위에 올랐다.<sup>44)</sup>

전지왕 사후 적장자인 구이신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섭정’을 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목만치가 국정을 장악하고 왕모와 정을 통했다는 기록을 보면, 왕모인 八須夫人<sup>45)</sup> 일종의 섭정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목만치 세력은 전지왕대부터 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sup>46)</sup> 구이신왕의 즉위를 계기로 왕모 세력과 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이신왕의 뒤를 이은 비유왕 역시 구이신왕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즉위 8년만에 죽은 구이신왕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비유왕은 역시 전지왕의 庶子로 보는 이해가 합리적이다.<sup>47)</sup> 아신왕, 전지왕, 구이신왕 3대까지는 여러 곡절 속에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다시 비유왕대에 이르러 전지왕의 서자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었다.<sup>48)</sup>

이상과 같이 진사왕부터 비유왕까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기의 백제 왕실은 부여씨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현 국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는 원칙은 고수되지 못하였다. 거듭되는 왕위계승의 갈등을 고구려 남하로 인한 왕권 약화 또는 왕제의 권력욕에 따른 왕위쟁탈 시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백제 왕위계승에 절대적인 ‘界線’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컸다고 생각한다. 즉, 부여씨의 특정 가계가 왕위를 ‘독점’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적장자인 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의 次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대 국왕과 동세대인 왕제에게 왕위계승 자격이 우선 부여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태자가 어디다거나 태자가 국내에 없었던 상황 등의 정치적 상황과 명분에 따라 왕제가 왕위에 도전할 수 있었다. 비록 현 국왕의 적장자인 태자가 왕위계승을 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더라도, 왕제를 비롯한 부여씨 왕족은 차기 군주가 될 ‘자격’이 있었고,<sup>49)</sup>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적장자 대신 유력한 ‘適任者’ 왕족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건국 초기 이래로 여러 왕계가 경쟁하였던 백제 왕위는 근초고왕 이후로 부여씨 초고계가 잇

4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毗有王 원년 12월, “毗有王久尔辛王之長子 或云腆支王庶子 未知孰是 羨姿貌 有口辯 人所推重 久尔辛王薨 即位”

45) 八須夫人에 대해서는 解氏로 이해되었다가(李基白, 1959 ; 1996, 160쪽), 倭國 출신 부인설(김기섭, 2005)이 제기되었다. 한편, 전지왕의 왕비는 2명으로 제1비는 진씨, 제2비는 해씨로 비정하여 팔수부인을 진씨로 이해하거나(강종원, 2012, 124~125쪽) 제1비는 왜 출신, 제2비는 해씨 출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노중국, 2018, 256~257쪽).

46) 왜에서 오래 체류한 전지왕이 해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목씨 세력을 중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盧重國, 1988, 158쪽).

47) 李基白, 1959 ; 1996, 143쪽 ; 李道學, 1984, 27쪽.

48) 木滿致의 전횡을 방지한 구이신왕의 실정을 빌미로 비유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盧重國, 1988, 140쪽 ; 이도학, 2010, 149~150쪽).

49) 왕이 될 수 있는 가계의 범위는 『삼국사기』 백제 왕계를 기준으로 할 때, 6촌에서 8촌 범위 안에 속하는 왕족이 해당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梁起錫, 1990, 13~18쪽).

는다는 점은 분명하였지만, 국왕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왕제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계승 자격과 정치적 위상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국왕과 그 직계로 구성된 왕실은 부여씨 왕족 집단에서 ‘초월’ 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sup>50)</sup> 왕제의 정치적 위상은 왕제가 ‘內臣佐平’ 과 ‘上佐平’ 을 독점적으로 맡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① 3년 봄 2월에 만아들 腆支를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이복동생 洪을 內臣佐平에 임명하였다.<sup>51)</sup>
- ② 3년 봄 2월에 [전지왕] 이복동생 餘信을 內臣佐平에 임명하고, 解須를 內法佐平에 임명하고, 解丘를 兵官佐平에 임명하니 모두가 왕의 친척이다.<sup>52)</sup>
- ③ 4년 봄 정월에 餘信을 上佐平에 임명하여 군사와 정치에 관한 일을 맡겼다. 상좌평이라는 직책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지금[고려]의 冢宰와 같다.<sup>53)</sup>
- ④ 文周王 [혹은 汶州라고 한다.]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처음에 비유왕이 돌아가시고 개로가 왕위를 잇자 문주가 그를 보좌하여 지위가 상좌평에 이르렀다.<sup>54)</sup>
- ⑤ 여름 4월에 왕의 아우 昆支를 내신좌평으로 삼고, 만아들 三斤을 태자로 책봉하였다.<sup>55)</sup>

3세기 중반~5세기 중반까지 백제 국왕의 왕제(왕서제)가 내신좌평을 맡았다는 기록이 빈출한다. 그리고 전지왕대에 상좌평이 설치되고 餘信이 상좌평을 맡은 이래로 개로왕대 文周까지 이어진다.<sup>56)</sup> 내신좌평은 왕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만큼 국왕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을 것이다. 또한 상좌평을 맡았다는 점에서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자리를 왕제가 맡았다고 할

50) 부여씨 집단 안에서 국왕 또는 특정 가계가 초월하기 어려웠던 구조는 한성기 왕릉 묘역인 석촌동 고분군의 양상에서 엿보인다. 석촌동 고분군은 1917년 조사에서 290여 기에 이르는 고분이 밀집 분포하였던 것이 밝혀졌다(李炳鎬, 2011, 122~125쪽). 최근 1호분 북쪽 연접 적석총에 대한 발굴을 통해 중·소규모 적석묘들이 연결되어 총 길이 120m가 넘는 대규모 연접식 적석총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덤의 중심부를 흙으로 쌓는 성토식 적석묘와 돌로만 쌓는 순수 적석묘가 연접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분구가 확대되면서 多人葬이 이루어졌다(정치영, 2021, 69~72쪽 ; 윤정현, 2022, 262~263쪽). 이것은 왕의 무덤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혈연집단의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는 결과물로서 이해된다(조가영, 2014, 32~34쪽 ; 김낙중, 2021, 388쪽).

51)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3년 2월, “三年 春二月 立元子腆支爲太子 大赦 拜庶弟洪爲內臣佐平”

5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3년 2월, “三年 春二月 拜庶弟餘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

5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4년 1월, “四年 春正月 拜餘信爲上佐平 委以軍國政事 上佐平之職 始於此 若今之冢宰”

54)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원년 9월, “文周王 或作汶洲 蓋鹵王之子也 初毗有王薨 蓋鹵嗣位 文周輔之 位至上佐平”

55)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3년 4월, “夏四月 拜王弟昆支爲內臣佐平 封長子三斤爲太子”

56) 上佐平의 설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거나(李基白·李基東, 1982, 175쪽 ; 梁起錫, 1982, 20~22쪽 ; 김영심, 1997, 29쪽 ; 金起燮, 1997, 130쪽), 磔禮의 반란을 진압한 功臣 세력이 주도적으로 정치 운영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盧重國, 1988, 141~142쪽). 상좌평의 명칭으로 보아 좌평보다 한 수준 높은 지위로 생겨난 것임은 분명하다. 상좌평은 귀족세력을 대표하면서 국왕의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하는 ‘양면성’ 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 있다.

왕제를 내신좌평에 임명한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2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①과 ⑤와 같이 태자 책봉과 동시에 왕제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자 책봉을 통해 국왕의 직계 자손을 차기 후계자로 결정하면서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왕제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내신좌평을 맡은 왕제는 왕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후계자인 태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대표적인 왕제였다고 할 수 있다.<sup>57)</sup>

둘째로 왕서제 즉, 이복동생이 내신좌평을 맡았을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국왕의 동생을 ‘왕제’와 ‘왕서제’로 표현을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표현의 차이가 ‘嫡庶’ 개념에서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왕서제의 존재를 통해 국왕에게는 모계가 다른 여러 형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58)</sup> 왕서제의 친모는 국왕의 친모인 正妃와 성씨가 다른 왕비였을 수도 있고, 정비와 같은 성씨더라도 가계가 다른 왕비였을 수도 있다. 물론 백제에서 ‘적서’ 개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庶’에는 기본적으로 ‘여럿’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왕서제를 왕위를 계승하는 적장자 외에 다른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도 가능하다.<sup>59)</sup>

이처럼 같은 부여씨 왕족이라 하더라도, 母系에 따라 혹은 왕족 서열에 따라 정치적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백제 왕실은 왕제(왕서제)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여 태자의 후견인으로서 대우하고자 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왕제에게 兵官佐平과 左將같은 군사권을 관할하는 직임을 맡기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sup>60)</sup>

비류왕 18년 왕서제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신좌평의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도 한성 밖에 있는 북한성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17년 봄 정월에 왕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각각 食邑을 내려주었다.<sup>61)</sup>

백제 말기 의자왕대 있었던 사실이지만, 왕족에게 좌평과 식읍을 사여하는 기사가 주목된다. 고위 관등 수여와 함께 식읍이 지급되는 양상은 한성도읍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식읍의 지급은 곧 해당 지역의 조세와 공물 그리고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역 동원이 가능한 경제적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었다.<sup>62)</sup>

57)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여 삼근왕의 후견인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 (鄭載潤, 1999, 74쪽).

58) 노중국, 2018, 268쪽.

59) 박윤선, 2018, 137-138쪽.

60) 개로왕대 昆支의 경우 『宋書』百濟傳에선 左賢王을 맡고 『日本書紀』에서는 軍君이라고 불린 경우가 있어 왕족이 군사권을 관할하였던 사례로 이해하기도 한다(이도학, 2010, 176쪽). 그러나 곤지에게 정식으로 병관좌평을 맡기지 않은 것 자체가 왕족에게 군사권을 관할하는데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1)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의자왕 17년 1월, “十七年 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

우복과 북한성의 관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sup>63)</sup> 우복과 같은 왕족은 고위 관등과 식읍 그리고 私的 군사력을 운용할 정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제가 왕위찬탈의 목적으로 군사적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병관 좌평처럼 공식적으로 군사권을 관할하는 직임은 맡기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Ⅲ. 外戚勢力의 주요 직임 독점

근초고왕대 이후 백제 왕실은 眞氏, 解氏 두 성씨 집단과 연속적으로 통혼하면서 병관좌평 등의 주요직을 맡겼다. 이와 같은 진씨, 해씨의 우월한 위상을 반영하여 왕족과 대비되는 ‘王妃族’ 이었다고 명명하기도 한다.<sup>64)</sup> 근초고왕부터 아신왕대까지 5대에 걸쳐 진씨와 통혼하였고, 전지왕대 이래로는 해씨와 주로 통혼한 것으로 파악한다. 진씨, 해씨가 왕실과 통혼하며 최고위급 귀족세력으로 자리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씨, 해씨라고 하여 성씨 집단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 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진씨, 해씨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가계의 ‘分化’ 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진씨, 해씨의 모든 가계가 왕실과 통혼한 왕비족으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2년 봄에 좌평 解仇가 은솔 燕信과 더불어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眞男에게 명하여 군사 2,000명으로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은) 다시 덕솔 眞老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그 아내와 자식을 붙잡아 웅진 저지에서 목을 베었다.<sup>65)</sup>
- ② 9월에 왕이 나라 서쪽 泗泚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燕突을 달솔로 삼았다.<sup>66)</sup>
- ③ 19년 여름 5월에 병관좌평 진로가 죽자 달솔 연돌을 병관좌평으로 삼았다.<sup>67)</sup>

62) 양기석, 2005, 26~29쪽.

63) 북한성은 우복의 재지기반으로서 독립적 성격의 군사적 기반을 둔 곳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강종원, 2002, 70쪽). 우복의 반란군은 우복과 그에게 협조한 部の 유력자들의 군사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노중국, 2018, 191쪽).

64) 진씨, 해씨 세력을 ‘왕비족’ 이라고 명명(李基白, 1959 ; 1996, 153~164쪽)한 이래로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한편,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백제 정치사를 설명하기에는 왕비족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문동석, 2007, 43쪽 주 43번).

65)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삼근왕 2년, “二年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 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 以兵二千討之 不克 更命德率眞老 帥精兵五百 擊殺解仇 燕信奔高勾麗 収其妻子 斬於熊津市”

66)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동성왕 12년 9월, “九月 王田於國西泗泚原 拜燕突爲達率”

67)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동성왕 19년 5월, “十九年 夏五月 兵官佐平眞老卒 拜達率燕突爲兵官佐平”

웅진도읍기의 사실이지만, ①과 같이 478년 解仇와 함께 난을 일으킨 燕信은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그의 아내와 자식은 연좌되어 처형되었다. 그렇지만 연씨 집단 전체가 ‘滅門之禍’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② 490년 燕突은 달솔을 받았고 ③ 497년 병관좌평을 맡게 된 것처럼 연씨 집단 내에서도 연신 가계처럼 멸문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연돌 가계처럼 좌평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는 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진씨, 해씨를 통칭하여 ‘왕비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진씨, 해씨는 유력 성씨 집단으로서, 이 중 특정 가계가 왕실과 통혼하여 ‘外戚’으로서 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 ① 41년 봄 정월에 右輔 乙音이 죽자 북부의 解婁를 우보로 임명하였다. 해루는 본래 부여 사람으로 神識이 깊었고, 나이가 70세를 넘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므로 등용한 것이다.<sup>68)</sup>
- ② 10년 겨울 10월에 右輔 屹于를 左輔로 삼고, 北部 眞會를 우보로 삼았다.<sup>69)</sup>
- ③ 49년 가을 9월에 北部의 眞果에게 명하여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石門城을 습격하여 빼앗도록 하였다.<sup>70)</sup>
- ④ 여름 4월에 眞忠을 左將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겼다.<sup>71)</sup>
- ⑤ 2월에 眞忠을 右輔로 삼고 眞勿을 左將으로 삼아 군사 업무를 맡겼다.<sup>72)</sup>
- ⑥ 2월에 眞可를 內頭佐平으로 삼고, 優豆를 內法佐平으로 삼고, 高壽를 衛士佐平으로 삼고, 昆奴를 朝廷佐平으로 삼고, 惟已를 兵官佐平으로 삼았다.<sup>73)</sup>

근초고왕 이후 왕실의 통혼 대상이 된 진씨, 해씨 성씨 집단은 건국 이래로 백제의 성장을 함께한 ‘창업세력’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解婁는 온조왕의 族父인 乙音에 이어 右輔에 임명되었다. 해씨는 부여씨와 같은 부여 출신으로서 건국 초기부터 부여씨와 연합하여 백제의 유력 세력으로 자리한 것으로 파악된다.<sup>74)</sup>

진씨 세력은 온조왕대부터 고이왕대까지 유력 세력이 맡는 우보와 左將에 임명되었고, 특히 ③ 말갈과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건국 초부터 백제는 북방의 낙랑과 말갈의 침략에 맞

68)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41년 1월, 23년, “四十一年 春正月 右輔乙音卒 拜北部 解婁爲右輔 解婁率扶餘人也 神識淵與 年過七十 旅力不愆 故用之”

69)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10년 10월, 37년, “十年 冬十月 右輔屹于爲左輔 北部眞會爲右輔”

70)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肖古王 49년 9월, “四十九年 秋九月 命北部眞果 領兵一千 襲取 靺鞨石門城”

71)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弼王 7년 4월,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72)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弼王 14년 2월, “二月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

73)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弼王 28년 2월,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優豆爲內法佐平 高壽爲衛士佐平 昆奴爲朝廷佐平 惟已爲兵官佐平”

74) 해씨 세력은 임진강 일대 및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 고구려식 적석총과 증석식적석총이 분포하는 지역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하거나(노중국, 2018, 85~86쪽), 해씨는 진씨와 더불어 北部에 소속되어 있다가 解婁가 右輔의 직에 임명되면서 한성으로 기반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강종원, 2002, 68쪽). 혹은 漢北으로부터 임진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 중 해안 일대에 해씨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龍虎, 2009, 59쪽).

서야 했다. 3세기 백제 왕실은 진씨 세력과 연합하여 북방의 말갈 등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sup>75)</sup> ⑥의 고이왕대 6좌평 임명 기사에서 眞可가 內頭佐平으로 임명된 것을 볼 때 진씨 세력은 한성도읍기 초기부터 대표적인 유력 성씨 집단으로서 자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 여름 4월에 東明 사당에 배알하였다. 解仇를 兵官佐平에 임명하였다.<sup>76)</sup>

② 가을 7월에 가을 7월에 궁실을 수리하였다. 眞義를 內臣佐平에 임명하였다.<sup>77)</sup>

온조왕대 이후 해씨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다가 4세기 초 比流王代에 解仇가 병관좌평에 임명된 것을 보면, 해씨는 진씨 세력 못지않은 유력 세력으로서 온존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78)</sup>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왕서제 優福을 대신하여, 내신좌평에 임명된 眞義를 통해 진씨 세력 역시 최고위급 귀족으로 존재하였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sup>79)</sup> 이처럼 진씨, 해씨 세력은 후보 등을 맡는 대표적인 유력 세력으로 존재하였고 이후에 병관좌평과 좌장을 맡았던 것을 볼 때, 군사적 역량을 가진 성씨 집단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진씨, 해씨 세력의 우열은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엇갈린다.

① 2년 봄 정월에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제사지냈다. 眞淨을 朝廷佐平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며 일할 때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권세를 믿고 제 마음대로 하니 국민들이 미워하였다.<sup>80)</sup>

② 2년 왕의 장인 眞高道를 內臣佐平으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sup>81)</sup>

③ 3년 봄 정월에 眞嘉謨를 達率에 임명하고, 豆知를 恩率로 삼았다.<sup>82)</sup>

④ 9월에 왕이 達率 眞嘉謨에게 고구려를 치라고 명령하니, 都坤城을 빼앗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왕이 진가모를 兵官佐平에 임명하였다.<sup>83)</sup>

75) 진씨 세력을 濊系 출신으로 파악하는 견해(노중국, 2018, 85~86쪽 ; 문동석, 2015, 315쪽), 해씨와 같은 북방이주민으로 이해하는 견해(千寬宇, 1976 ; 1989, 314쪽 ; 양기석, 1990, 39쪽), 말갈과의 전투와 낙랑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었던 파주 적성면 일대에 진씨의 근거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정재윤, 2007, 16~20쪽) 등이 제기되었다.

76)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比流王 9년 4월, “夏四月 謁東明廟 拜解仇為兵官佐平”

77)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比流王 30년 7월, “秋十月 修宮室 拜眞義為內臣佐平”

78) 해씨 세력이 비류왕의 즉위를 도와 중용된 것이라고 보거나(노중국, 2018, 189쪽), 해씨 세력은 고이계가 왕통을 이을 때는 유력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범초고계인 비류왕과의 연대를 통해 병관좌평이 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강중원, 2002, 69쪽).

79) 우복의 난 이후 왕권의 안정을 위해 진씨 세력과 통혼하였다고 보거나(노중국, 2018, 189~190쪽)와 우복의 난을 진압하는데 진씨 세력이 일정한 기여를 하여 중용한 것이라는 견해(강중원, 2002, 72쪽) 등이 있다.

80)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년 1월,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拜眞淨為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狼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81)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2년, “二年 以王舅眞高道為內臣佐平 委以政事”

8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 1월, “三年 春正月 拜眞嘉謨為達率 豆知為恩率”

8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6년 9월,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為兵官佐平”

- ⑤ 眞武를 左將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진무는 왕의 외삼촌으로서,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많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복종하였다.<sup>84)</sup>
- ⑥ 가을 8월에 왕이 左將 眞武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왕 談德이 몸소 군사 7,000명을 이끌고 溟水 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해 죽은 자가 8,000명이었다.<sup>85)</sup>
- ⑦ 7년 봄 2월에 眞武를 兵官佐平으로 삼고 沙豆를 左將으로 삼았다.<sup>86)</sup>

근초고왕, 근구수왕대 백제 왕실은 왕후의 친척, 왕의 장인인 진씨 세력에게 좌평을 맡겼다. 왕실과 통혼한 진씨 세력을 통해 왕명을 수행하고(內臣佐平), 다른 유력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朝廷佐平)을 맡긴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은 고구려로 친정하면서 군사권을 직접 관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사와왕 아신왕대에는 진씨 세력이 병관좌평과 좌장을 맡았다. 진사와왕 아신왕의 왕위계승 갈등 속에서 진씨 세력은 군사권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sup>87)</sup> 한편, 이 무렵은 광개토왕의 남진이 본격화된 위기 국면이었다. 과거 북방에서 말갈 등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진씨 세력은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게 됐다. ④ 都坤城 전투에서 승전하였지만, ⑥ 溟水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함으로써 진씨 세력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였을 것이다.

- ① 腆支가 倭에서 부고를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돌아가기를 청하니 왜왕이 군사 100명으로 호위하며 보냈다. 이윽고 국경에 이르자 漢城 사람 解忠이 와서 알리기를,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왕의 동생 설례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태자께서는 경솔히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전지가 왜인을 머물게 하여 스스로 지키면서 바다의 섬에 의지하여 기다렸더니 나라사람들이 磔禮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비는 八須夫人이니 아들 久尔辛을 낳았다.<sup>88)</sup>
- ② 2년 가을 9월에 解忠을 達率로 삼고, 漢城의 조 1,000섬을 주었다.<sup>89)</sup>
- ③ 3년 봄 2월에 이복동생 餘信을 內臣佐平에 임명하고, 解須를 內法佐平에 임명하고, 解丘를 兵官佐平에 임명하니 모두가 왕의 친척이다.<sup>90)</sup>
- ④ 3년 겨울 10월에 上佐平 餘信이 사망하자 解須를 상좌평으로 삼았다.<sup>91)</sup>

8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 “拜眞武爲左將 委以兵馬事 武王之親舅 沉毅有大略 時人服之”

8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 8월,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溟水之上拒戰 我軍大敗死者八千人”

86)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7년 2월, “七年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

87) 노중국, 1988, 134쪽.

8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원년 9월,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国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弃世 王弟磔禮 殺兄自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 以待之 国人殺磔禮 迎腆支即位 妃八須夫人 生子久尔辛”

89)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2년 9월, “秋九月 以解忠爲達率 賜漢城租一千石”

90)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3년 2월, “三年 春二月 拜庶弟餘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

91)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毗有王 3년 10월, “冬十月 上佐平餘信卒 以解須爲上佐平”

근초고왕대부터 아신왕대까지 5대 동안 계속된 진씨 세력의 위상은 전지왕의 즉위로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태자 전지의 귀국길에 변란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준 이는 ② 漢城人 解忠이었다. 전지왕의 즉위를 계기로 해씨는 ③과 같이 주요 좌평에 임명되었다. ‘전지왕의 친척’이라는 표현에서 전지왕은 해씨와 통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건의 맥락상 진씨 세력은 태자 전지보다는 설례를 지지했거나,<sup>92)</sup> 혹은 전지왕의 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지왕대부터 시작된 해씨 세력의 득세는 ④ 비류왕대 解須가 상좌평에 임명되면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개로왕대에는 해씨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문주왕대에 解仇가 병관좌평에 임명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93)</sup> 일단 해씨 세력은 한성 함락 시기에 온존하였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유력 성씨 집단으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로왕대 해씨 세력이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개로왕대에도 유력 성씨 집단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주왕대 해구가 병관좌평에 임명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94)</sup>

[표 2] 진씨, 해씨의 정치적 위상(온조왕~문주왕)

왕대(연도)	국왕과의 관계	이름	직임(관등)	비고
온조왕 41년(23)		解婁	右輔	北部, 年過七十
다루왕 10년(37)		眞會	右輔	北部
초고왕 49년(214)		眞果	-	靺鞨 石門城 습격
고이왕7년(240)		眞忠	左將	
고이왕14년(247)		眞忠	右輔	
고이왕14년(247)		眞勿	左將	
고이왕28년(261)		眞可	內頭佐平	
비류왕 9년(312)		解仇	兵官佐平	
비류왕 30년(333)		眞義	內臣佐平	
근초고왕 2년(347)	王后親戚	眞淨	朝廷佐平	
근구수왕 2년(376)	王舅	眞高道	內臣佐平	
진사왕 3년(387)		眞嘉謨	達率	
진사왕 6년(390)		眞嘉謨	兵官佐平	
아신왕 2년(393)	王之親舅	眞武	左將	
아신왕 7년(398)		眞武	兵官佐平	
전지왕 원년(405)		解忠	達率	
전지왕 2년(406)	王戚	解須	內法佐平	
전지왕 3년(407)	王戚	解丘	兵官佐平	

92) 盧重國, 1988, 136쪽 ; 梁起錫, 1990, 78쪽.

93)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2년 8월, “秋八月 拜解仇爲兵官佐平”

94) 강중원, 2012, 129쪽.

비유왕 3년(429)	王威	解須	上佐平	
문주왕 2년(476)		解仇	兵官佐平	

이상과 같이 침류왕대 이후 반복되었던 왕위계승의 갈등은 왕제의 왕위쟁탈 시도와 진씨, 해씨 외척세력의 선택적 지지에 따라 벌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의문인 것이 백제 왕실은 왜 거듭되는 왕위계승 갈등 속에서도 왕족과 외척세력이 주요 권력을 ‘분담’ 하는 구조를 계속 허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 신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진씨, 해씨는 백제 건국 초기부터 부여씨와 연합하여 우보 등을 맡고 국정에 참여한 일종의 ‘창업세력’이었다. 부여씨는 ‘백제 최고의 귀족세력’ 으로서 차상위에 해당하는 진씨, 해씨와의 통혼으로 ‘연합’ 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들과 연합을 통해 나라 밖으로는 낙랑, 말갈 등의 외부세력에 대항하였고, 나라 안으로는 여러 계통으로 분화된 왕족을 견제하는 왕실의 울타리로 삼고자 하였다. 물론 경우에 따라 왕제와 외척세력이 도리어 왕실의 위협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왕실은 친족집단과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친족집단의 연대를 고수한 지배구조는 역설적으로 국왕 친족집단 범주 밖에 존재하였던 유력 세력을 의식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초고왕대 조정좌평 眞淨이 ‘國人’ 을 엄격하게 처우하여 불만이 팽배했다는 구절이 주목된다.<sup>95)</sup> ‘국인’, 즉 진씨, 해씨 이외 계통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력 성씨 집단이 존재하였던 백제의 지배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유력 성씨 집단의 竝存

성씨 집단은 혈연적·지연적 연고를 공유한다. 백제 중앙 정계에서 다양한 성씨 집단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 세력의 기득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였던 백제의 영역확장 방식의 역사적 산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sup>96)</sup> 백제 사회에서 각 성씨 집단의 독자성은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견고하였다. 일례로 백제 왕실이 부여씨 왕성을 ‘賜姓’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하다. 유력 세력을 왕성으로 인위적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각 성씨 집단의 ‘독자성’ 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인명 표기 방식을 보면, 동성왕대 이전까지 백제 국왕은 생전 이름 그대로를 왕명으로 쓰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왕족 역시 직접 부여씨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만 표기하고 있는 반면, 여타 귀족들은 외자 성씨와 이름을 쓰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에 木菝, 祖彌, 再曾, 古尔 등의 여러 ‘復姓’ 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sup>97)</sup> 부여씨와

95)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년 1월,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狼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96) 오택현, 2013, 200쪽.

97)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21년 9월, “文周乃與木菝滿致 祖彌桀取 木菝 祖彌皆復

더불어 당시 귀족 세력에는 복성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sup>98)</sup>

① 3월에 왕의 아우인 優壽를 內臣佐平으로 삼았다.<sup>99)</sup>

② 2월에 眞可를 內頭佐平으로 삼고, 優豆를 內法佐平으로 삼고, 高壽를 衛士佐平으로 삼고, 昆奴를 朝廷佐平으로 삼고, 惟己를 兵官佐平으로 삼았다.<sup>100)</sup>

①, ②와 같이 6좌평에 임명된 사람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優氏, 眞氏, 高氏의 사례를 보면, 昆奴와 惟己 역시 昆氏와 惟氏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6좌평 기사를 통해 고이왕대 다양한 성씨 집단이 존재하였고 고위급 귀족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6좌평 직임을 맡은 인물 중에 고수가 주목된다. 중국계 관료로 추정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씨는 낙랑·대방군 출신 인물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고수가 ‘위사좌평’에 제수되었다는 것이다. 고이왕대부터 6좌평제가 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회의적이지만, 고수가 위사좌평의 직무인 국왕의 侍衛軍에 해당하는 군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국계 인사가 국왕의 호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고수 개인의 역량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고수의 위사좌평 임명은 당시 중국계 이주민 집단이 武裝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연관되지 않나 한다. 고수는 낙랑·대방군 출신으로 당시 중국 대륙에서 무장한 이주민 집단을 이끌었던 ‘塢主’·‘行主’<sup>101)</sup>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이왕은 고수가 이끌고 있던 중국계 이주민 집단을 받아들여 이들을 왕실의 군사적 기반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을 수도 있다. 고이왕의 아들인 책계왕이 帶方王女 寶菓와 혼인했다는 사실에서<sup>102)</sup> 고이왕은 중국계 유력 세력과의 연합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이왕과 책계왕대에는 낙랑·대방고지 출신 수장들이 백제로 귀부하여 대우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姓 隋書以木剌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 高句麗對盧齊于 再曾桀婁 古尔萬年 再曾 古尔皆 複姓等帥兵 來攻北城”

98) 백제의 ‘複姓’에 대해서는 李弘植, 1971, 333~360쪽 참조. 개로왕대 진씨·해씨 이외에 다양한 성씨 집단이 출현하는 것은 개로왕의 집권력 강화 시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장미애, 2015, 13~17쪽). 한편, 다수의 ‘복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왕권이 성씨에 대한 사회 통제를 못한 것으로, 한성도읍기 말기와 웅진천도기 백제의 사회적 혼란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오택현, 2020, 70~71쪽). 다수의 複姓이 존재하는 현상이 한성기 말~웅진기 초기 만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각 성씨 집단의 독자성이 허용되고 있었고, 부여씨 집단 역시 ‘賜姓’ 행위를 통해 계통이 다른 세력을 포용하기보다는 王姓으로서의 차별성을 견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99)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尔王 27년 3월, “三月 以王弟優壽爲內臣佐平”

100)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古尔王 28년 2월,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優豆爲內法佐平 高壽爲衛士佐平 昆奴爲朝廷佐平 惟己爲兵官佐平”

101) 田村實造, 1985, 93~98쪽 ; 金鍾完, 1984, 244쪽 ; 具聖姬, 1998, 11쪽.

102)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責稽王 元年,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 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旦城 地城備之”

겨울 11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옛 기록(古記)에 이르기를,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 문자로 일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에 이르러 博士 高興을 얻어 비로소 書記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高興이 다른 책에 나온 적이 없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sup>103)</sup>

근초고왕대 이후 중국계 관인층이 대거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근초고왕 때 博士 高興을 얻어 ‘書記’, 즉 기록을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서기’를 歷史書로 이해하거나,<sup>104)</sup> 문서 행정<sup>105)</sup> 또는 역사 기록을<sup>106)</sup>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sup>107)</sup> 근초고왕대 박사를 통해 한문에 능숙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가 정책 자문관 및 文翰官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을 짓는 능력은 왕명을 받아 문서를 만들고 이를 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 적합하였다. 『舊唐書』 백제전을 보면, 백제의 문서의 형식(表疏)이 中華의 법도를 따랐다고 하는데, 문서 행정 체계가 중국과 유사했음을 의미한다.<sup>108)</sup> 백제가 중국의 문서행정 체계를 모델로 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행정을 담당하였을 중국계 관료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국계 관료는 국왕의 지근거리에서 왕명을 받드는 近侍職과 문한직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 ① 49년 봄 3월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 때 어떤 사람이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蓋盧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 하였다. 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에게 [이 두 사람은 그姓을 모르는데 다만 木羅斤資는 백제 장군이다.] 精兵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가도록 명하였다. 함께 曷孫國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sup>109)</sup>
- ② 7년 봄 2월에 眞武를 兵官佐平으로 삼고 沙豆를 左將으로 삼았다.<sup>110)</sup>
- ③ 25년 百濟의 直支王이 죽었다. 곧 아들 久爾辛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木滿致가 國政을 잡았는데, 왕의 어머니와 서로 정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天皇后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 『百濟記』에는, “木滿致는 木羅斤資가 新羅를 칠 때에 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낳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功으로 任那에서 專橫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貴國(倭)에 갔다가 돌아와 天朝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의 국정을 잡았

103)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년 11월,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104) 李丙燾, 1959, 571-572쪽 ; 曹凡煥, 2015, 8-12쪽.

105) 朴成熙, 1999, 38-39쪽.

106) 김창석, 2016, 84쪽.

107) ‘書記’는 역사서의 편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史草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서의 편찬과 문서행정이 함께 내재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장미애, 2017, 46쪽 주22번).

108) 『舊唐書』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並依中華之法”

109) 『일본서기』 권9, 神功皇后 49년, “卅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110)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7년 2월, “七年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

는데, 권세의 높기가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그러나 天朝에서는 그의 형포함을 듣고 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다.<sup>111)</sup>

한편, 근초고왕대 이후부터는 진씨, 해씨 같은 전통적인 귀족 세력 이외에도 ①과 같이 木氏, 沙氏 등 이후 ‘大姓八族’에 해당하는 성씨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나오는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들은 왜병과 함께 신라와 가야 제국을 평정하는 참전하였다고 한다. 신공기 49년조는 기사와 사건 연대와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공기 49년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목씨, 사씨 세력이 부상하는 시점은 백제의 남방 진출 시기에 해당되고<sup>112)</sup> 목씨, 사씨 세력은 전쟁에 참여하여 군사적 ‘공로’를 세운 것이 주목된다. 백제 초기 북방과 동방에서 낙랑과 말갈을 상대로 군사적 공로를 세웠던 진씨 세력과 마찬가지로 목씨, 사씨 역시 백제의 남방 진출에 세운 군사적 공적은 고위급 귀족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됐을 것이다. ② 아신왕대 사두가 좌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군사적 역량과 업적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sup>113)</sup>

③ 구이신왕의 즉위를 계기로 목만치는 국정을 장악할 수 있었다. 목만치가 최고위급 귀족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목라근자의 공로가 주된 배경이 되었고 아들에게 그 정치적 위상이 ‘세습’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씨를 비롯한 다른 유력 성씨 집단 역시 누대로 그 정치적 위상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주는 이에 木荔滿致 祖彌桀取 목협과 조미는 모두 複姓인데, 『隋書』에서는 木荔를 두 개의 성이라고 하였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對盧 齊于·再曾桀婁·古尔萬年[재증과 고이는 모두 복성이다.] 등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고 옮겨서 南城을 공격하니 성 안에서는 위태롭고 두려워하였다. 왕이 나가서 도망하자 고구려 장수인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했다.<sup>114)</sup>

111) 『일본서기』 권10, 應神天皇 25년, “廿五年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政 與王母相姪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 討新羅時 娶其國婦 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朝聞其暴召之”

112) 木氏와 沙氏의 출신지 역시 한강유역 이남에서 금강유역으로 추정된다. 목씨 세력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목지국의 도읍인 직산(盧重國, 1988, 155~156쪽), 공주(金周成, 1990, 41쪽), 가야계 귀화인(鄭載潤, 1999, 50쪽) 등이 있다. 사씨 세력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부여인 사비지역(盧重國, 1978, 75쪽), 부여 가림성이 있는 임천지역(兪元載, 1996, 83-86쪽) 또는 대전 유성의 內斯只城(李道學, 2003, 45-46쪽), 서천 일대(강종원, 2012, 229-231쪽) 또는 금강 하구일대(박윤우, 2021, 16-25쪽) 등으로 비정된다.

113) 沙豆의 左將 임명에 대해서는 대고구려전에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강일대에서 유력 세력인 사씨를 기용하여 대고구려 군사 동원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한다(梁起錫, 1990, 70쪽). 사두는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姜鍾元, 1999).

11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21년 9월, “文周乃與木荔滿致·祖彌桀取 木荔·祖彌皆

근초고왕 이래로 진행된 백제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귀부하거나 포섭된 유력 세력들은 백제 중앙 정계에서 다양한 성씨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한성도읍기 말기인 개로왕 21년조에서 확인되는 木茹, 祖彌, 再曾, 古尔씨 등의 다양한 複姓의 가문이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세력의 우열과 편차가 있었을 성씨 집단이 여럿 병존하고 있었고 웅진 천도 이후에도 새로운 성씨 집단의 성장이 계속되었다.

5세기 백제 왕실은 주요 권력을 근친 왕족과 외척세력이 분담하는 지배구조를 고수하였다. 친족집단인 진씨, 해씨 이외에도 군사적 역량을 갖춘 사씨, 목씨 등 유력 세력이 있었고, 낙랑·대방군 등의 중국계 유민을 이끌고 귀부한 중국계 유력 인사부터 중국의 문물과 기술에 익숙한 중국계 관료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유력 성씨 가문이 ‘병존’ 하였던 사실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여씨는 왕위를 독점한 ‘백제 최대의 귀족세력’이었지만, 각 성씨 집단의 ‘합종연횡’에 따라 부여씨의 위상을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sup>115)</sup>

그리하여 부여씨 집단은 창업세력이자 차상위 유력 세력인 진씨, 해씨와 통혼하고 이들과 ‘연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여씨 왕실은 이들과 공고한 연합을 통해 다른 유력 성씨 집단을 제어하는 우월한 위상을 선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진씨, 해씨 세력 역시 경쟁대상이 될 만한 유력 성씨 집단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써 왕실과 통혼하고 군사권 등의 주요 직임을 독점하면서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혈족으로서 그 위상을 지키고자 하였다.

한편 사씨, 목씨 같은 유력 세력들은 부여씨 왕족 간에 왕위계승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국인’으로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왕위계승 갈등 속에서 즉위한 백제 국왕은 “臣民(國人)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계승했다.”는 식의 기록이 남아 있다.<sup>116)</sup> 수사적 표현이지만, 단지 외척세력인 진씨, 해씨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기록 이면에 존재했을 사씨 등 ‘복성’을 가진 여러 성씨 집단과 중국계 성씨 집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複姓 隋書以木茹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尔萬年 再曾·古尔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 下馬拜已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 戕之 桀婁·萬年 李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115) 삼근왕대 解仇와 燕信이 결합하여 일으킨 해구의 난이 대표적이다.

116)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比流王 원년 10월, “比流王 仇首王第二子 性寬慈愛人 又強力 善射 久在民間 令譽流聞 及汾西之終 雖有子 皆幼不得立 是以爲臣民推戴即位”;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腆支王 원년 9월, “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妃八湏夫人 生子久尔辛”

## V. 맺음말

백제 왕위는 부여씨와 해씨 또는 부여씨와 우씨와 같이 유력한 왕계가 존립하며 서로 경쟁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부여씨 초고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부여씨가 왕위를 잇는다는 원칙은 확고하였으나, 부여씨의 특정 가계가 왕위를 ‘독점’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현 국왕의 ‘적장자(태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은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왕의 次子가 아닌, 국왕의 왕제 같은 유력한 ‘적임자’ 왕족이 왕위를 계승하는 변칙이 허용되었다.

왕위계승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부여씨 왕족 내에서 왕위계승의 분명한 ‘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였다.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왕위계승이 독점되지 못한 것에는 왕제 등의 근친 왕족이 가진 정치적 위상, 경제적 혜택, 사적 군사력 등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태자 책봉과 함께 유력한 왕제를 내신좌평을 맡겨 일종의 태자의 후견인처럼 두는 ‘관례’가 정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병관좌평 등의 군사권을 관할하는 직임은 왕족에게 맡기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씨, 해씨 세력은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백제의 건국과 성장을 이끈 창업세력이었다.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진씨, 해씨 세력은 부여씨 왕실과 연속적으로 통혼하며 주요 직임을 맡았고 특히 병관좌평으로 상징되는 군사권을 독점적으로 관할하였다. 경우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자를 선택적으로 지지하며 왕실과 인척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시도하였다. 왕실과의 통혼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주요 직임에서 배제되는 정치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上佐平, 內臣佐平, 병관좌평과 같은 핵심 직임은 왕족과 외척 세력이 관례적으로 ‘분담’하였다. 이는 곧 국왕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군사권 행사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왕권이 친족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초월’할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배구조가 고수된 것은 방계 왕족의 왕위 도전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가까운 친족집단을 왕실의 울타리로 삼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여씨, 진씨, 해씨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沙氏, 木氏 등 새로운 유력 성씨 집단과 中國系 유력 인사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백제 최대 귀족 세력’인 부여씨는 왕위계승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진씨, 해씨와 선택적으로 연합하며 통혼했으며, 진씨, 해씨 또한 왕실과 인척 관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친족집단마다 가진 이해관계와 핵심 권력을 ‘분담’하는 관례에 따라 부여씨 특정 가계가 왕위를 ‘독점’할 수 없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왕위계승 갈등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부여씨, 진씨, 해씨 세력은 주요 직임과 핵심 권한을 독점하는 지배구조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5.05.23, 심사개시일: 2025.06.02, 게재확정일: 2025.06.11.

【참고문헌】

(국문)

- 姜鍾元, 1999, 「百濟 左將의 政治的 性格」 『百濟研究』 29.
- 강종원,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 강종원, 2012,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 具聖姬, 1998, 「漢晉塢壁의 성질 및 기능」, 『魏晉隋唐史研究』 4.
- 길기태, 2012, 「漢城百濟의 對外交流와 佛敎」, 『百濟研究』 55.
- 金起燮, 1997, 「百濟의 佐平 試論」 『清溪史學』 13.
-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 김기섭, 2005, 「5세기 무렵 백제 渡倭人의 활동과 문화 전파」,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김낙중, 2021,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 김영심, 1997, 「漢城時代 百濟 佐平制의 전개」 『서울학연구』 8.
- 김영심, 2015, 「중앙통치조직의 성립과 운영」,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배체제(서울2천년사 4)』, 서울역사편찬원.
- 金鍾完, 1984, 「晉代의 塢主-晉의 南遷과 관련하여-」, 『全州又石大論文集』 6.
- 金周成, 1990, 『百濟 泗泚時代 政治史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석, 2016, 「中國系 인물의 百濟 유입과 활동 양상」, 『역사문화연구』 60.
-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 문동석, 2007, 『백제 지배세력 연구』, 해안.
- 문동석, 2015, 「국왕과 왕권, 그리고 귀족세력들」,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배체제(서울2천년사 4)』, 서울역사편찬원.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朴成熙, 1999,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 88.
- 박운선, 2018, 「백제의 중국식 이름문화 수용 과정의 고찰 -백제왕과 왕족의 이름을 중심으로-」, 『百濟學報』 25.
- 박운우, 2021, 「백제 沙氏 세력의 부상과 세력 기반」, 『百濟學報』 35.
-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의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 10.
-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기석, 2005, 『백제의 경제생활』, 주류성.
-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고대편)』, 一潮閣.
-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道學, 1984,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 45.
- 이도학, 2010, 『백제 한성·웅진성 시대 연구』, 일지사.
-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編)』, 震檀學會.
- 李炳鎬, 2011, 「日帝強占期 百濟 故地에 대한 古蹟調査事業」, 『韓國古代史研究』 61.
-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 오택현, 2013, 「백제 복성(複姓)의 출현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88.
- 오택현, 2020,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俞元載, 1996, 「百濟 加林城 研究」, 『百濟論叢』 5.
- 윤정현, 2022, 「IV. 고찰」 『서울 석촌동 고분군Ⅳ-1호분 북쪽 연결적석총4-(상)』, 한성백제박물관.
- 李道學, 2003, 「百濟 泗泚 遷都의 再檢討」, 『東國史學』 39.
- 이용호, 2016, 「백제 진사·아화왕의 왕위계승 재검토」, 『東아시아 古代學』 43.
- 장미애, 2015, 『백제 후기 정치 세력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애, 2017, 「백제 내 이주민 집단의 위상 비교」, 『歷史學研究』 66.
-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운, 2007, 「初期 百濟의 成長과 眞氏 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29.
- 정치영, 2021 「석촌동 1호분 북쪽 연결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
- 조가영, 2014, 「무덤을 통해 본 백제 한성기의 성격」 『2014 백제사 연구 쟁점 대해부』, 백제학회
- 조경철, 2002, 「百濟 漢城時代 불교수용과 정치세력의 변화」, 『韓國思想史學』 18.
- 曹凡煥, 2015, 「三國의 國史編纂과 王權」, 『韓國史研究』 168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하일식, 2005, 「고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사 연구 50년』, 해안.
- 홍성화, 2024, 「『日本書紀』에 보이는 百濟의 정변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46.

#### (일문)

- 田村實造, 1985, 『中國史上의 民族移動期 -五胡北魏時代政治社會-』, 創文社.

## 【Abstract】

## Baekje's Governance and Royal Succession Conflicts in the Late 4th to Early 5th Centuries

Baek, Kil-nam  
(Curator, Seoul Baekje Museum)

The distribution of key administrative and military positions, such as Sang-jwapyeong, Naesin-jwapyeong, and Byeongwan-jwapyeong, among the royal family and powerful in-laws inherently constrained the king's authority over appointments and military control. This arrangement undeniably indicates that the monarch could not truly transcend the vested interests of their kin group. Nevertheless, this power-sharing governance structure persisted. This was primarily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challenges to the throne from collateral branches of the royal family could not be easily controlled, it became crucial to fortify the royal house by integrating close relatives.

Moreover, this system served the common interests of the Buyeo, Jin, and Hae clans. It was difficult to disregard a political landscape where other influential aristocratic clans, such as the rising Sa and Mok clans, and even Chinese immigrants, coexisted. As the foremost aristocratic power in Baekje, the Buyeo clan strategically allied and intermarried with the second-tier Jin and Hae clans to ensure stable royal succession and effective state administration. Similarly, the Jin and Hae clans sought to secure their established privileges by maintaining their marital ties with the royal family.

Thus, while the Baekje governance structure, shaped by the interests of these kin groups, prevented any single Buyeo lineage from monopolizing the throne and led to recurrent succession conflicts, it simultaneously enabled the Buyeo, Jin, and Hae clans to maintain a robust political cartel, effectively monopolizing key offices and core authorities.

<p><b>Keywords</b> : Royal family, Maternal relatives, Buyeo clan, Jin clan, Hae clan, Royal Succession Conflicts</p>
---